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1월 9일(일) 제1563호

다음세대 응원단

2026 차세대 교사모집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제자를 세우고, 다음세대를 세우고,
미래의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음세대 응원단
유년1부

다음세대 응원단
정진만

다음세대 응원단
김민정

다음세대 응원단
김하은

신입교사 지원 온라인 신청서

사랑부 지원 차세대 지원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

“다음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2026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 교사 175명, 사랑부 교사 40명 필요

‘2026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을 11월 8일(토)부터 16일(일)까지 한다. 현재 차세대 교사 175명, 사랑부 교사 40명이 더 필요하다.

2026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려면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을 품은 성도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 세례교인, 공동

체 순예배 참석 중인 성도여야 한다.

차세대 교사 모집 기간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교사들의 간증과 특순을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1~4부 예배와 대학청년부(SNS, 하늘, 요셉) 예배에서는 유남옥, 장요한, 이영희, 예상욱, 정현우, 김단비, 조명, 이슬기 교사가 간증하고, 유년2부, 유치부 연합, 예꿈 사이닝 키즈, 유년1부, 유년3부, 초등2부가 특순한다. 양재 1~4부 예배와 대학청년부(여호수아,

J4U, 허브)예배에서는 양은경, 이신혜, 김주미, 권성국, 박정미, 이정연, 이진희 교사가 간증하고, 유년2부, 예꿈 사이닝 키즈, 초등1부, 유년1부, 유아부 연합, 초등2부가 특순한다.

2026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사명교육’도 한다. 목요반은 12월 4일(목)부터 26일(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반은 12월 6일(토)부터 2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사랑부 02-570-734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안전관리위원회, 화재 대피 훈련 실시

11월 16일 서빙고 2부 예배 직후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11월 16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예배 직후 진행한다. 본당, 비전홀, 시온홀, 자모실, 두란노홀, 콘서트홀, 사랑홀 등 교회 주요 시설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과 화재 진압 시연 등을 한다. 실질적인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훈련 참가자들은 동빙고근린공원 실습장에서 심화 안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CGN 홈페이지 ‘예배 VOD 서비스’ 종료

CGN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온누리교회 예배 VOD 서비스를 종료한다. 11월 12일(수)부터 시청할 수 없다. 온누리교회 예배 VOD 서비스는 11월 16일(일)부터 기독교 OTT ‘풍당’에서 제공한다. 과거 예배 영상은 추후 순차적으로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문의: 02-792-0691

수험생을 위한 ‘수능당일기도회’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수험생을 위한 ‘수능당일기도회’를 개최한다.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3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이어진다. 수험생들과 동일한 일정으로 기도회를 한다. 1교시 박종길 목사, 2교시 강부호 목사, 3교시 최성민 목사, 4교시 노치형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한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2025 엔젤트리’ 사연 접수

11월 16일까지 사연신청서 제출

2025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한다. 11월 16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사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연을 신청할 때는 돕고 싶은 이웃의 사연과 연락처, 도로명 주소, 전하고 싶은 선물, 신청자 이름, 소속 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은 5만 원 이하(옷,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후원이나 기부도 가능하다.

2025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2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전시한다.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엔젤트리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운동이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7-03004(온누리교회 엔젤트리)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11월 비전헌금, 스포츠선교회 ‘FCA’ 후원

11월 8일(토)과 9일(일) 봉헌하는 11월 비전헌금은 운동경기장을 선교지 삼아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선교회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FCA는 1954년 미국에서 창립해 올해 70주

년을 맞이한 국제적인 스포츠선교 단체다. FCA의 비전은 코치와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FCA 한국지부 ‘FCA Korea’는 2017년 문을 열었다(관련 기사 5면).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이 각 부족, 족속들에게 정의롭게 분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없도록 하려고 제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예외가 허용됐습니다. 자진해서 어떤 땅을 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단 우리는 함께 정복하는 것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과 유다 지파가 자진해서 헤브론 산지, 가장 위험하고 힘든 땅을 정복하겠다고 자진한 경우입니다. 남다른 헌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희생하는 선택을 했을 때 존중되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반면 요셉 지파처럼, “우리는 인원이 많고 두 지파나 되는데 땅이 너무 좁습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거절하며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주는 기계적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미치게 되는 것, 그것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는 것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1~3절). 의도치 않게, 고의가 아닌, 미움이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복수를 바로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도피성을 만들어 피난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도피’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어감을 많이 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도피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도피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보다 훨씬 심한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

들, 당장 피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곳은 필요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사회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기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받아 줍니다. 혐의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혐의 없음이 확인되면 그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진짜 잘못된 것이라면 복수를 받도록 내어 줍니다.

이 성읍을 요단 동편에 세 개, 요단 서편에 세 개를 지정합니다.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계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 지정됐고,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지역입니다. 골고루 분포된 이유는 어디서든지 다가가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지점에서 도피성을 지정한 것이 놀랍습니다. 전쟁이 잦고 폭력적인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복 사회로 치닫았던 그 시대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제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면 도망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시는 의도성을 기준으로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피해를 받으면 보복에 나서는 시대였습니다.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시대에 이 아이디어를 통해 그 사회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모델을 보여주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된 경우는 보호해 주고, 도피성 제도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수 35:22~25). 합당한 확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해서 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건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신 19:4~5). 그래서 도피성에 오면 장로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재판관 역할을 했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의도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도록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사랑

피할 곳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호수아 20:1~9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의도한 죄로 인해서 영혼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정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째, 실수를 범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복수심을 표현하는 정의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재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 중심의 사회가 아닌 회복 중심의 사회를 보여줍니다. 의도성 없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하는 정의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수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피해 받은 사람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나 공권력에 의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수를 맡겨 놓으면 당한 것보다 심하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러한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셋째, 실수라고 할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정의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는 게 증명돼도 그 사람에게 치러야 할 대가는 그 도피성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일종의 구금 효과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가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실수의 대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연결해 놓은 것의 의미입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사람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값을 치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신 제도입니다.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냥 눈감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죄 값을 치름으로 살 길을 열어 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복수에서 나오는 정의인가 아니면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부르짖는 경우 ‘정의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행동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정의를 외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정의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정의, 어떤 것도 올바른 사랑과 정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편〉 어느 말씀에 의하면, 사랑과 정의가 서로 입 맞추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결국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에는 이방인이나 여행객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서만 보호 받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늘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잠그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죽인 자만 보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은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안내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의도한 죄로 인해서 영혼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정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의입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개인적으로는 낙태가 싫다 그렇다고 낙태가 불법이어야 할까?

당신에게 “나는 낙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낙태는 싫지만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할 때 사실 사람들은 도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선호의 주장은 단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마치 아이스크림의 어떤 맛을 더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말하는 것과 같다.

반면 도덕적 주장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반대 주장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도덕적 주장이다. 왜냐하면 낙태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그것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법적 결정은 선호가 아니라 도덕성에 근거해야 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자.

“나는 노예제도가 싫지만, 그렇다고 그걸 불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배우자 폭행이 싫다면 폭행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다고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을 필요는 없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노예제도나 배우자 폭력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노예제도나 배우자 폭력이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노예로 억압된 사람들과 배우자들은 본질적으로 존엄한 인간 존재이며, 재산처럼 취급당하지 않을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노예제나 배우자 폭력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선호는 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제로 만약 누군가 그런 행위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건 당신에게는 옳고 나에게는 그른 일이지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법은 잘못된 일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낙태가 의도적으로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낙태의 수를 줄이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낙태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면, 그것만으로

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

“나는 개인적으로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그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나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정치인은 즉시 비난받고 공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사실, 만약 어떤 사회가 단지 인종 차별을 ‘줄이기만 하고’, 백인이 흑인을 부당하게 대하는 일을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깊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일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만약 낙태가 사회 구성원을 해치는 도덕적 잘못이라면, 법은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낙태 문제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이미 낙태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한 기관인 연방 법원이 이 사안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그 결과 시민들과 선출된 대표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연방 법원 판사들이다. 만약 누군

가 “연방 정부는 낙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연방 법원에도 해당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법은 태아를 소중한 인간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소중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것을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현재 연방 법원은 태아가 어린아이, 십 대, 혹은 다른 인간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공적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결코 중립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도덕적 판단을 내렸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번에 어떤 친구가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그것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법적 결정은 선호가 아니라 도덕성에 근거해야 한다.”

“법은 잘못된 일을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정부는 낙태 문제에 대해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적 전쟁

충돌하는 세계관, 신앙인의 용기



윤상우 집사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단 11:32).

1930~40년대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즘이 온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조차

시대의 압력에 굴복해 히틀러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본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히틀러에 반대하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는 수용소에 갇히고, 교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중 어느 세계관을 붙들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바벨론 제국은 왕의 권세와 문화, 그리고 신상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 권력’을 절대화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

는 믿음을 붙들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슴없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믿음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안타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서야 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움이 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갑자기 소수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나 믿음의 표현조차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치 등 뒤에서 세속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떠밀고 있는 듯하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 불리지 않으며 우리 사회 또한 ‘탈기독교(post-christian)’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익은커녕 오히려 대가가 따른다.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적대적으로 변해 간다. 점점 하나님, 진리, 내세에 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불쾌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

고 있다.”

우리는 한때 머나먼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체감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교육, 친구,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이 혼재하며 거짓된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다. 인본주의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시대를 한탄하기보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모든 뜻을 밝히시는 한 분,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쁨으로 받았기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서야 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소리는 사랑보다 먼저 도착한다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새로운 예능 하나가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발라드’라는 장르로 형식을 제한했다. 발라드라는 단어의 힘이 의외로 크다. 제목만 들어도 ‘계절이 바뀌었구나’를 느끼게 되고, 방송을 보다 보면 참가자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익숙한 멜로디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음악과 연결된 기억과 감정들을 떠올리게 된다.

당신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가?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인가? 크리스천에게 음악은 특히 더 친숙하다. 예배, 기도, 묵상 어느 곳에서도 음악이 빠지지 않는다. 당신의 음악적 재능이나 취향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 모두 음악적 존재다. “난 음치인데... 악기도 못 다루고, 찬양 부를 때마다 틀려서 속상한데...”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음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였다. 엄마의 뱃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규칙적인 소리가 ‘음악의 시작’이었다. 엄마의 심장 소리는 분당 60~80번 뛰는 가장 완벽한 리듬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제일 익숙하고 안정적인 멜로디다. 양수를 통해 전달된 생명의 소리는 뇌의 감각을 깨우고, 세상과의 첫 연결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심장 박동과 유사한 속도의 음악을 들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실제로 신생아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대부분이 60~80bpm의 잔잔한 곡들이다. 이러한 음악은 아이들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음악

의 첫 만남이며, 부모와 자녀의 최초 교감이다. 우리의 첫 만남이 이토록 음악적이었다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 몸은 수많은 리듬과 멜로디로 가득하다. 심장이 뛰는 간격, 숨 쉬는 패턴, 일정한 걸음걸이까지 모두 음악적 움직임이다. 게다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바이브를 지닌 독특한 음악적 존재로 살아간다. 생리적 리듬은 삶의 안정감을 주고, 감정과 신체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뇌는 음악을 들을 때 ‘축제’를 벌인다.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은 음악이 뇌의 여러 영역을 어떻게 동시에 활성화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전두엽은 멜로디를 분석하고, 측두엽은 리듬을 감지하며,

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높인다.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사실은 음악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춘다는 점이다. 음악은 실제 통증의 지각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 이론 ‘관문통제이론(gate control theory)’에 따르면 통증이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기 전 음악 자극이 그 관문에 작용해서 신경 정보를 일부 차단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분만실, 수술실, 치과, 심지어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동까지 치유의 현장에는 늘 음악이 흐른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삼상 16:23).

다윗의 수금 소리는 사울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했다. 악령이 떠났고, 사울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꿈같이 물어 봅니다”(시 77:6).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깊은 영적 성찰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다. 혹시 지금 챗바퀴 같은 일상과 전쟁 같은 육아 한복판에 서 있는가? 기력이 달리고, 위로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영혼을 향한 작은 선물로 음악을 건네보자. 좋아하는 음악,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을 들어보자. 음악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뇌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감싸고,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육아의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넣어두신 원초적 소리이며, 언어이자, 가장 먼저 우리를 감싸준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소리는 사랑보다 먼저 도착한다. 믿어도 좋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넣어두신 원초적 소리이며, 언어이자, 가장 먼저 우리를 감싸준 사랑의 도구다.”

두정엽은 화음을 이해한다. 대뇌변연계는 음악에 담긴 감정을 해석하고, 소뇌는 박자에 따라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 모든 영역이 마치 불꽃놀이처럼 서로 반짝이며 연결되고,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조합된다.

최근 신경과학은 음악이 뇌의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라고 말한다. 즉, 음악은 뇌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치매, 뇌졸중, 자폐 스펙트럼, ADHD 등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에 음악치료가 적용되고,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은 단지 뇌를 활성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는 화학적 반응도 함께 일으킨다.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잔잔한 클래식을 들으면 세로토닌이 증가해 마음이 안정된다. 격렬한 음악은 노르아드레날린 분비



94. 마라톤(1)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1월 4~5일
본문 ‘딤후 2:19~21, 3:1~5’

- 주인(하나님)이 쓰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딤후 2:21)
 - 예쁜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한다.
 -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 깨끗한 음료를 담아야 한다.
- 이 세상 마지막 때(말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나요?(딤후 3:1)
 - 모두가 부자가 된다.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어려운 때가 온다.
 -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

3.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보세요(딤후 3:1-5).

- 돈을 사랑한다.
- 화해하지 않는다.
- 선한 것을 좋아한다.
- 잘난 척한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할머니와 함께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유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해볼래?”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절할 생각이 있었는데 왜 바로 ‘그래요’라는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예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 할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랑 함께한 일대

일제자양육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키 그림도 그렸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배운 것을 퀴즈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퀴즈를 맞으면 선물도 받았습니.

여러 가지 과자와 과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만들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와 친구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랑 같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지유 어린이
(평택 꿈이자라는 땅 소년부)

운동장을 넘어 영혼의 골대로!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ics)와 스포츠 사역



김창원 장로
(맞춤전도스포츠위원회, 강남E공동체)

영국에서 근대 스포츠가 태동한 배경에는 단순한 여가나 오락 이상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 정신(Puritan Ethos)’이었다. 청교도들은 노동과 경건, 인내와 절제, 공동체 의식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고, 이 가치들이 스포츠 문화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자본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스포츠는 점차 윤리와 공동체성을 잃고, 승리와 상업주의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했다.

스포츠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승부 그 이상의 것(More than Winning)’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인종과 언어, 국경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공평과 정직, 절제와 인내의 정신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단복을 입고 한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흘린 땀을 통해 관계가 이어지고, 몸과 영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크리스천 스포츠인은 주어진 재능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신 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얻은 명예와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어 봉사하고, 땀과 헌신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스포츠가 주는 영적 소명이다.

스포츠의 선한 가치

“고백하건데 그라운드 위에서 땀 흘리던 그 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은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복음의 불꽃을 지피고 있는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ics) 사역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1950년대, 미국의 한 대학 농구 코치는 스포츠의 선한 가치를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꿈을 꾸었다. 그의 이름은 ‘돈 맥클래넨(Don McClanen)’이다. 그는 “왜 선수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상품 광고에만 사용하고 복음에는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품고 7년간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11월 10일,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FCA)’가 세워졌다. FCA의 비전은 분명하다.

‘코치와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FCA의 미션(Mission)은 모든 코치와 선수

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화 되는 것이다. 초기부터 FCA는 캠프와 경기, 현장 사역을 통해 운동장을 복음의 장(場)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1956년 콜로라도 에스테스파크에서 열린 첫 전국 콘퍼런스에는 선수와 코치 256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신앙 훈련을 통해 “운동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었다.

FCA의 핵심 가치는 진실성(Integrity), 섬김(Serving), 팀워크(Teamwork), 탁월함(Excellence)이다. 이 네 가지는 스포츠 정신과 복음의 정신을 잇는 다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운동 현장에 녹여내는 실천 원리이다.

한국에서도 ‘스포츠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믿음을 아래 젊은 사역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 FCA 사역을 통해 한 생명이 구원받고, 팀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된 변화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야구 LA다저스 커쇼, 농구 골든스테이트워리어스의 커리, 제레미린, 미식축구 티보우, 한국 프로야구 LG트윈스에서 뛰었던 타일러월슨, 두산 베어스의 콜어빈, 박민, SK 와이번스를 우승 시킨 트레이 힐만 감독 등 수많은 선수와 감독들이 FCA사역을 통해 양육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 시절 FCA 캠프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접했던 사람들이다.

한국 스포츠선교 현황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선교 단체는 1976년 설립된 초교파적 스포츠선교 단체인 ‘세계스포츠선교회’, 조직이나 홈페이지조차 없지만 활발히 스포츠를 통한 제자사역을 하는 ‘ISC(International Sports Coalition)’가 있다. 한국에서는 ‘sportsmovemen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영무 축구 감독이 속한 ‘할렐루야축구단’, 1994년 CCC(대학선교회)에서 창립한 태권도 선교단체 ‘TIA(Taekwondo In Action)’, 탁구로 복음을 전하는 ‘양명자탁구미션(YTMM)’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공사랑축구전도팀’, ‘온타선(온누리탁구선교회)’ 그리고 스포츠영성건강프로그램인 ‘엘라이프’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2024년부터 여성민 목사님이 이끄는 맞춤전도스포츠위원회가 시작되어 ‘Why&How sports mission’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스포츠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필자는 2011년 두란노서원에서 근무하던 한 목사님과 중국에서 역파송 온 스포츠 사역자, 축구와 유도 국가대표 출신 크리스천 리더들과 함께 미국의 캔자스시티(Kansas City)의 FCA 국제 본부를 방문했다. 당시 FCA는 창립 55년

역사의 가진 사역단체였지만, 미국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는 사역자를 파견하지 못한 반쪽짜리 사역 단체였다. 하지만 그해 국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덴브리튼 FCA 부회장(목사, 대학 라크로스 선수 출신)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우리를 극진히 맞아 주었고, 스포츠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질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Wisdom(지혜자) - relationship(관계) = Nothing(영향력 없음)’

Wisdom(지혜자) + relationship(관계) = Impact & Influence(선한 영향력)’

지혜로운 사람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 덕에 탐방 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FCA는 2011년 폴타임 사역자가 662명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2,161명, 2025년 현재는 3,500명 정도로 증가해 부흥의 길에 들어서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FCA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106개국에 진출했다. 한국 FCA는 2017년 9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FCA Korea 대표는 국가대표 하키선수 출신 TIM(두란노국제선교회) 이영재 선교사다. 평균 연령이 29세인 젊은 사역자 12명과 축구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영표 집사를 포함한 8명의 이사진이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다.

한국 FCA는 국내 코치와 선수들과의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 현장 사역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국내 청소년 선수는 “FCA 캠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과 경기장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선교의 수혜국’이 아니라 국제적 스포츠사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최초의 FCA 후원자 이벤트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코치 한 명이 팀을 바꾸고, 선수 한 명이 학교를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한국 청소년 스포츠 현장에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 사역의 가장 큰 열매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답을 수 없는 ‘삶의 변화’다. 경기장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 패배 뒤에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선수, 그리고 경기장이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다는 고백 등 살아 있는 증거들이 FCA 사역의 본질이자 스포츠 사역의 영향력이다. 코트 위에서, 운동장 위에서,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 FCA의 발걸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포츠 선교’

FCA 국제 본부가 위치한 캔자스시티 지역은 FCA 사역의 중요한 현장이다. 이 지역 FCA 사역자들은 캔자스시티 다운타운에 있는 흑인 밀집 지역의 센트럴고등학교와 같은 지역 고교 운동부, 미주리대학교 등 대학 캠퍼스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넘어서 선수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일상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역자들은 미식축구팀 라커룸에서 ‘허들(Huddle, 소그룹 성경공부)’을 인도하고 있다. 이 학교의 많은 선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사역자들이 “너희의 가치는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선수는 “경기에서 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코치님과 FCA 모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됐다. 이제 경기장 밖에서도 섬기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는 FCA가 운동부를 ‘복음을 배우는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FCA 사역자들은 선수들이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도록(Disciple-making Disciples) 돕는 사역에 집중한다. 그들은 성경적 코칭 원리인 ‘3D 코칭(Discipline, Developing, Directing)’을 통해 코치들이 선수들의 몸과 정신, 영혼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도록 돕고 있다. 한 청소년 선수는 FCA 캠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다.

“이제 경기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뛰고 싶습니다.”

스포츠 선교는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지만, 운동장에는 잘 모인다. 그렇기에 복음이 스포츠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스포츠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공통의 언어이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전략적 도구이다. 전도는 이제 “와서 들으라(Come&Hear)”에서 “가서 함께하라(Go&Play)”로 바뀌고 있다. 모든 성도는 운동장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뛰고, 응원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다. 스포츠 선교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운동장을 예배의 자리로, 경기장을 복음의 장으로 바꾸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스포츠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 운동장을 넘어 영혼의 골대로 나아가자!

맛있는 말씀 해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 5:13)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도덕적 혼란과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삶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역시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였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동안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하스모니안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에 이르렀고, B.C.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유대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로마는 유대 제사장들을 이용해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등 종교적, 정치적으로 유대인을 억압했다. 유대인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역시 점차 로마에 협력하며 식민지 체제를 돕는 기관으로 변질했고, 결국 종교적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예수님은 이 명칭을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 이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이자 사명이었다. 그렇다면 소금이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 소금은 짠맛을 낸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바울도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권면한다(골 4:6) 우리가 은혜로운 말과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게 된다.

둘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와 타락으로 기울어가지만, 성도들은

그 안에서 부패를 막는 영적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진리와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다.

셋째, 소금은 생명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은 단순한 음식의 부재료가 아니다. 한때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분과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전문의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사람의 몸에서 약 0.9%의 염분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요소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소금으로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넷째, 소금은 녹아야만 맛을 낸다. 헬라어로 ‘맛을 잃다’라는 단어가 ‘모라이네인’인데, 이 단어는 ‘어리석게 되다’, ‘어리석게 만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어리석은 상황이 된다. 녹지 않은 소금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건축재료로도 쓸 수 없다. 녹을 때 맛을 내며 기능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이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미 제자들은 소금이었다. 그러나 소금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녹을 때에야 비로소 짠맛을 내며 제구실을 한다. 성도는 자신을 희생하며 녹을 때 세상에 맛을 내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한다. 소금처럼 짠맛을 내며 부패를 막는 존재, 그리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금’의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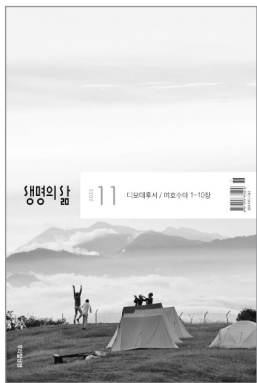


여성민 목사
(광명공동체)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요단강 도하의 기적

11월 10~16일
〈여호수아〉 1:10~4:14



에 대해 묵상하자.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 할 것을 온 백성에게 전한다. 또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서쪽(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끝마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요청한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신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믿은 여인이다. 정탐꾼들과 라합의 만남을 통해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묵상포인트 1: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큰일을 이룬다.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을 준비시킨다. 특히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헌신을 다짐받는데, 그 이유

섭리에 대해 묵상하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낸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는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온 것을 알리자, 왕은 사람을 보내 정탐꾼을 수색한다. 라합은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 밑에 그들을 숨겨 준다.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을 진멸시키신 일 등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을 선대했듯이, 그들도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가족과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한다. 붉은 줄은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표가 될 것이다.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무사히 도착한다.

묵상포인트 3: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요단강 도하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묵상하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 관리들이 백성이 할 일을 명한다. 제사장들이 언약을 메고 앞서가면 백성은 2,000규빗(약 900m)쯤 떨어져서 뒤따라야 했다. 제사장들

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곳에 쌓였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을 메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 요단 가운데 들어가 돌 열두 개를 가져오게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서 위대하게 하시며 그의 리더십을 확증해 주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같은 비전을 품고 서로 힘을 합쳐야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나는 하루 동안 무엇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는지 돌아보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결함을 명령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에는 백성보다 앞서서 나아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도록 열두 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다.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가 흑색종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코에서 시작되었는데 갑상선으로 전이 되었고, 두 차례 수술 이후 현재는 목과 겨드랑이, 폐의 임파선 부위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왼쪽 목과 턱부위에 걸쳐 큰 혹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로도 암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혹이 또 커져서 다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암(급성암)이라 전이가 빨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치유 역사가 절실합니다. 아버지의 암 전이가 멈추고, 암세포가 정상화되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항암 치료로 인해 걷기 어려움, 어지러움, 미각 상실, 배뇨 장애 등 많은 부작용을 겪고 계십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힘든 치료 과정에서도 견딜 힘을 부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혼자 성경을 읽고 온라인 설교도 들으시지만,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해 다니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넉넉지 않아서 마음의 어려움도 크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추천 - ‘가나안 김용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일가(一家) 김용기 장로(1909~1988)의 생애와 신앙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가나안 김용기’가 지난 10월 22일(수) 개봉했다.

이 영화는 1966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Ramon Magsaysay A

ward)’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일깨운 김용기 장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김용기 장로는 일제강점기, 그 혹독한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사랑과 독립이라는 이상을 품고 성장했다. 그는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며 신앙과 애국을 분리하지 않았다. 일제의 강압 속에서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단호히 거부하며 신앙적 정절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다.

1930년, 김용기 장로는 경기도 양주에서 ‘봉안 이상촌’을 건설하고 신앙과 노동, 공동체와 교육이 어우러진 농촌 이상 향상을 실천했다. 소수 인원으로서 시작한 봉안 이상촌은 ‘신앙과 협동’이라는 정신 아래 인구가 두 배, 경작지가 4.5배 확장할 만큼 성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덴마크 농촌 운동 정신과 기독교적 공동체 비전을 결합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꿈을 꿔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로 봉안 이상촌은 폐허가 되었고, 다년간의 노동과 헌신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김용기 장로는 좌절하지 않고 경기도 용인의 황무지를 다시 개척했다. 그곳이 가나안농군학교

의 출발지가 되었고, 그는 가족 모두와 함께 농민 교육에 헌신했다.

김용기 장로는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을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근로, 봉사, 희생’ 정신에 기초해서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신념으로 새벽기도와 체조, 노동 등 신앙과 애국정신, 진정한 인간 됨의 교육을 실천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후에 새마을 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호미를’이라는 개척 정신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 오늘날 가나안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의 ‘근로, 봉사, 희생’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며,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신앙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용기 장로는 생의 마지막까지 농촌과 민족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었다. 그가 소련 한 이후 치러진 농민장이 그의 사역이 단순한 사회 운동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김용기 장로의 삶을 대단한 업적

으로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책임, 근면, 헌신을 성찰하게 하면서 관객들에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조용하지만 깊게 질문한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사 ‘파이오니아21’이 제작했다. 지난 2021년 서울사랑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나 정식으로 스크린에 오르기까지 4년이나 걸렸다.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상영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와 공동체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화 ‘가나안 김용기’는 필름포럼에서 관람할 수 있다. 상영 일정은 필름포럼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에서 ‘가나안 김용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체 관람을 원하는 경우 ‘사단법인 세계가나안운동’에 문의하거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61-4050

후원: 농협은행 042-01-037546 (사)세계가나안운동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정주호의 홀리바디(Holy Bady)

영 · 혼 · 육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일용할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말씀을 먹으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난다.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은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 1:29).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 9:3).

성경은 우리가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채소와 과일, 고기를 잘 먹고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우리는 식탐이나 스트레스를 마취시키기 위한 진통제로 폭식과 야식 등을 한다. 또 극한의 다이어트나 우울감으로 인한 거식증이나 편식, 극단적인 식단 등으로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한다.

주기도문을 외을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이다. 곧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먹고도 남을, 내

일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을 저장하듯 몸에 쌓아 넣는 것은 식탐이며 과욕이다.

〈고린도전서〉8장 13절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배불리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채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도 몸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음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 죄가 없다. 하지만 음식을 바라보고 먹는 사람의 마음에 식탐이 있다면 이마저도 탐욕이다. 물욕, 명예욕과 다를 게 없다. 또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뿐더러 체지방도 늘어난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하지만 식사 외에 야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역사적으로 이런 기도 응답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앞

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실천, 노력과 성실을 대적하는 나태와 게으름, 편해지고자 하는 본능의 욕심과 싸움이기 때문이다. 의지와 본능의 싸움은 하나님의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쉽게 구분하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본능을 거스르며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적절한 양과 영양소의 주어진 분량만큼만 감사히 먹는 절제의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

해야 한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다르지 않다. 때로 성경을 기간 내에 빨리 일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보통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읽기의 정확을 요구하는 ‘정독’, 분량을 빨리 해치우려는 ‘속독’, 최근 유행하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넓게 읽는 ‘통독’을 선택한다. 하지만 필자는 꼭꼭 씹어 먹는 방법인 ‘심독’을 권하고 싶다. 심독은 문맥 속 의미를 깊이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동시에 저자의 의도를 좇아가며 자신의 삶과 연결해 성찰하는 읽기

방법이다. ‘성찰적인 독서’ 또는 ‘묵상적 독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 이 성경 읽기는 내 안에서 울림을 찾아가게 도와준다. 그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와 외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읽기 속도가 느더라도 한 줄의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양식을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깨달으며 먹어야 한다. 육의 양식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몸은 살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삶을 살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을 담고 살아갈 몸이 죽는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고루 섭취해야 몸도 살고, 영도 살아난다. 오늘도 몸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루하루 삶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정주호 대표
(중종로공동체, 스타트레인대표, 재활과학박사)

이재훈 위임목사, 국회 앞 낙태 반대 1인 시위 참여

이재훈 위임목사가 지난 11월 5일(수) 국회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및 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최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제양규 공동운영위원장(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봉화 공동운영위원장(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파켓), 오창화 대표(한국임양선교회) 등이 함께했다.

이번 시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고, 오히려 낙태 범위가 확대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적이다.

이재훈 위임목사를 시작으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한기채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등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약 4개월 동안



이재훈 위임목사가 '낙태 합법화 및 약물 도입, 건강보험 적용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및 캠페인도 할 계획입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연말까지 '열린순예배'

모든 공동체, 순에서 기획 및 실행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이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어진다. 전도사역본부와 공동체사역본부가 주관한다.

열린순예배는 전도대상자를 순예배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전도의 장(場)이다.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초대해서 영화관, 음

식점,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순예배를 드리면 된다.

열린순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열린순예배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열린순예배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이 두 가지 버전으로 수록되어 있다. A타입은 38분, B타입은 85분 소요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부채탈출119' 참가자 선착순 50명 모집

'부채탈출119' 참가자를 12월 31일(수)까지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개인 부채, 가계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온누리교회 청장년 혹은 이들을 추천하려는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가계재정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12월 31일(수)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mayoh@naver.com)로 보내거나 QR코드에 접속해서 구글폼을 작성하면 된다.

부채탈출119는 재정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부채 및 가계부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부채상담 프로그램이다. 상담은 전문가와 1:1로 진행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문의: 010-5550-3655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책으로 보는 예수님의 삶!

11월 30일까지 '2025 독후감 대회'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기독교 고전 독서를 통한 신앙 성장을 목표로 '2025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지정 도서는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원작이기도 한 <예수의 생애>(찰스 디킨스)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 독후감 대회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11월 30일(일)까지 책 <예

수의 생애>를 읽고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이하 3장 이상, 초등부 4장 이상, 소년부 5장 이상, 중고등부 6장 이상, 성인 7장 이상이다. 제출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12월 14일(일)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11월 화요성령집회 'RE:Root'

11월 화요성령집회가 'RE:Root'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11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1월 최성민 목사 '건고히 뿌리내린 믿음' (골 2:6-15), 18일 이서진 목사 '열매를 맺는 믿음' (갈 5:16-26), 25일 최대홍 목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출 3:7-15)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Acts 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가족 동반 등록시 20% 할인).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성품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오원웅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6330-7634

/ 박지혜 기자

다시 성경으로!

CGN 성경 공부 프로그램 'RE바이블'

CGN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RE바이블'을 새롭게 선보였다. 'RE바이블'은 성경 말씀의 본질을 탐구하고,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도록 인도한다. 성경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CGN TV에서 방영한다.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RE바이블 첫 주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다. 개그우먼 김경아가 진행하고,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가 강의한다. 6주 동안 이어진다. 이후에도 성경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목사들과 학자 등 성경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수원온누리교회, CGN 대만지사 전 직원 초청 비전트립

수원온누리교회 CGN 선교사역팀(이하 수원 CGN 선교사역팀)이 지난 10월 31일(금)부터 11월 3일(월)까지 CGN 대만지사 전 직원(11명)을 초청해 비전트립을 했다.

이번 비전트립에서는 CGN 본사 방문, 한국문화체험, 수원온누리교회 특순, 감사패 증정 등을 했다. 모

든 경비비는 수원온누리교회 CGN 선교사역팀이 지원했다.

수원 CGN 선교사역팀은 지난 2년 동안 CGN 대만지사 아웃리치,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모든 성도에게 발송 등 CGN과 협력 사역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사진 스토리전 'Blossom the nuribom'

11월 14일 오전 11시, 15일 오전 10시 갤러리 관악

양재 이웃사랑팀이 섬기는 가정 폭력피해자 쉼터 '누리봄'이 사진 스토리전 'Blossom the nuribom'을 개최한다. 11월 14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악구청 갤러리 관악(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종합청사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 스토리전은 '내가 머문

순간들, 그 안의 빛'을 주제로 누리봄 가족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누리봄 가족들이 사진 치유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아픈 상처와 마음을 사진과 글로 풀어내고, 회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후원계좌: 농협 301-0354-1238-01(누리봄)

/ 홍하영 기자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11월 18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온누리교회가 한반도평화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변화에 따른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11월 18일(화)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한반도 통일

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현장 참가자에게는 행사 자료집, 연구 자료, 굿즈를 제공한다.

문의: 010-5792-3290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러브소나타 시가 한일 리더십 포럼 윤형주 장로 간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윤형주 장로
(서초B공동체)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 지금은 중국 영토가 된 용정에서 태어나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만 27년 2개월의 생을 마감했다. 윤동주 시인과 나는 육촌 관계이다. 우리 집안

은 1890년대 말 캐나다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조선 땅 북방의 북간도에 들어올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 영향으로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주일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성경 말씀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쳤던 청년이었다.

윤동주는 앞서가는 교육의 나라였던 일본에 대해 동경을 품고 있었다. 나의 부친은 명치(메이지, 明治) 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와세다대학에서 강의한 윤영춘 박사로, 조카 윤동주의 일본 유학을 적극적으로 도우셨다. 부친은 일본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동경의 릿쿄대학에 조카 윤동주를 입학시키고, 이후 교토의 도시샤 대학으로 전학을 시키셨다. 부친은 그의 하숙방까지 구해 주고 나서야 동경으로 가셨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다. 가계로는 당숙과 조카 사이면서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다. 또 용정중학교에서는 교사와 제자였으며, 문학적으로는 모두 시인이자 선배와 후배, 서로를 존경하는 문학지기였다. 두 사람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뜻을 품은 동지이기도 했다.

유산처럼 물려주신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

도시샤대학 재학 중이던 윤동주는 1943년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아버지는 동경에서 매주 후쿠오카 형무소로 조카 윤동주를 면회하러 가셨다. 나날이 수척해지는 그의 모습에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몸이 말라가느냐?”고 물으셨고, 윤동주는 “간수들이 영양제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주사를 놔주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보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윤동주가 사망했으니 시신을 가져가시오. 만약 시신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 시신을 규슈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해부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후쿠오카 형무소로 달려간 아버지 앞에는 차디찬 주검이 된 조카 윤동주가 누워 있었다.



“80년 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쫄쫄하게 숨져 간 나의 형님, 윤동주 시인이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고대한다.”

일본의 명문대를 나오셨던 아버지는 조카의 죽음 이후 절대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1978년 별세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 준 것은 일본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과 증오였다.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가수가 된 나는 이후 일본의 유명한 가수들과 친구가 되어 가깝게 지내면서 양국을 오가며 함께 공연했다. 그러나 후쿠오카 지역만큼은 방문하지 않았다. 그곳은 형님 윤동주 시인이 옥사한 곳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슬픔과 원망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후쿠오카를 생각하면 조카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셨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고, 우리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신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되살아났다.

“윤동주가 살아 있다면 일본을 용서했겠니? 용서하지 않았겠니?”

시간이 흐르고, 윤동주가 재학했던 동경의 릿쿄대학에서는 매해 2월 ‘윤동주 추모일’이 다가오면 대강당에서 예배와 함께 강연이나 음악회, 시낭송회를 열고 있다. 약 5년 전, 나는 이 대학으로부터 윤동주 추모콘서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족으로서 감사한 일이었지만, 또다시 아버지가 남겨 주신 아픔과 미움이 살아났다. 이에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가 이 행사에 가야 하나요? 거절해야 하나요?”

故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을 품자는 취지로 시작하신 ‘러브소나타’가 30여 차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참여 요청이 있었음에도 나는 한 번도 그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미움 때문에 그곳에서

봉사는 했을지언정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무대에 오를 수는 없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질문하셨다.

“윤동주가 살아 있다면 그가 일본을 용서했겠니?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겠니?”

윤동주는 살아생전 시를 통해 고백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서시” 中)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 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들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십자가” 中)

내가 윤동주 시인의 유족임을 아는, 그의 시를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은 내게 허리를 굽혀 절하며 용서를 구하곤 한다. 일본 북해도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600여 개의 윤동주 동호회가 있다. 매년 2월 16일 윤동주 시인 추모일이 되면 그들은 “윤동주의 시는 그 시인의 모국어로 낭송해야 한다”며 우리 말을 배운 뒤 읊면서 그의 시를 낭송한다. 살아생전 윤동주는 이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릿쿄대학 윤동주 추모콘서트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윤동주가 일본에서 체포되어 일본 땅에서 세상을 떠난 일로 인해, 유족 중 하나인 저에게 그토록 미안해 마십시오. 만약 윤동주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용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평생 닦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닌,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역사다. ‘러브소나타’의 목적과 방법도, 그 열매도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족을, 자녀를, 이웃을, 나라를, 더 사랑하길 바란다. 윤동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라는 얼굴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가수는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직업이지만, 일부는 관객들을 수입의 배경으로만 삼고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 환호성과 박수, 열성적인 함창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길 쉽지 않다. 술한 사랑 노래를 불러 인기를 얻고 부와 영광을 차지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사랑 연기를 잘했던 어느 여배우는 누가 쓴지도 모르는 악성 댓글에 끝내 목숨을 끊었다. 두 번째 곡의 음반 판매 실적이 저조해 그 상처로 세상을 등진 가수도 있다. 감동적인 연기와 노래로 사랑을 표현하던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도, 해보지도 못한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죽음의 문턱에 다가섰던 적이 있었다. 너무나 치욕스럽고, 죽고만 싶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조명이 화려한 무대에서 있는 내게 오셔서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네게 준 목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무척 기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값없이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려 한다. 나의 지친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이 만나게 되리라 믿는다. 그분이 나를 씻어 주신 것처럼, 모두의 발을 씻어 주실 것이며, 나를 살리신 것처럼, 모두를 살리실 것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온기가 서로에게 스미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80년 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쫄쫄하게 숨져 간 나의 형님, 윤동주 시인이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고대한다.

장로칼럼

해바라기와 바지랑대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미술작품을 접할 때 가장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작가가 하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다. 세상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것만 같았던 내 마음이 작품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외로움은 멈추고, 이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 힘이 생겨난다.

태양을 사랑했던 빈센트 반 고흐는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다. 해가 지더라도 여전히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바라기는 그리움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꽃이다. 끊임없이 뭔가를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품고 있어 더 사랑스럽다.

젓을 먹는 아이의 기다림은 다시 젓을 먹을 때까지의 시간이다. 학생의 기다림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도전하고 성취하며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학업에 정진하는 과정이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먹고 살 일에 집중하다가 중년에 이르러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면 기다림의 길이는 더 늘어난다. 기다림의 길이는 그 성숙도에 정비례하는 듯싶다.

한평생 그리움과 기다림 속에 사셨던 나의 어머니는 고향 집 앞마당에 해바라기를 심으셨다. 해바라기꽃이 어머니 당신의 얼굴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태양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라는 걸 어머니는 벌써 아셨을까?

“온종일 해를 보며 산다는 노란 해바라기를 엄마는 보셨을 거야. 엄마의 꽃밭에는 해바라는 아이들이 많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날마

다 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엄마를 보고 사는 건 우리의 제일 큰 기쁨이었어.”

이해인의 ‘해바라기 마음’ 첫 구절이다. 내가 어릴 적 고향 집 앞마당에는 가을벌들로 가득했다. 담장에는 호박이 익어가고, 멍석 위에서는 고추가 빨갭게 말라갔다. 마당 귀퉁이 우물가에 심어 놓은 해바라기꽃을 엄마는 바라보았고, 나는 엄마 치마끈을 잡고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마당을 가로질러 매어 놓은 기다란 빨랫줄에는 할머니와 엄마의 고생이부터 아기 기저귀 빨래까지 널려 있었고, 그 무게를 바지랑대 하나가 받쳐 들고 있었다. 바지랑대는 빨래 무게를 못 이겨 줄이 늘어지면 빨래가 땅에 닿지 않게 빨랫줄을 세워 올리는 긴 장대다. 바지랑대에서 여름에는 호랑나비가, 가을에는 고추잡자리들이 낮잠을 즐겼다.

어머니가 젓은 빨래를 탈탈 털 때 안개처럼 흩어지는 물방울의 촉촉함이 그냥 좋았다. 집집이 햇볕에 빨래가 말라가면서 바람에 나부끼는 정겨운 모습이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바지랑대를 빨랫줄에 끼우고 세우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거리며 균형을 잡아 주었다. 좌우로 나누어 시끄러운 우리네 세상도 바지랑대처럼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끝과 끝에서 힘있게 잡아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중간에서 받쳐 주는 바지랑대가 되어 줄 그 한 사람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어느새 11월이다. 나태주 시인은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고 11월을 표현했다. 멸종아 나무는 단풍잎을 털어내고, 공기는 점점 차갑게 스며들며, 사람들은 더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을 것이다. 지금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아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짧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살아가야 할 때다.

권사칼럼

나의 변화를 가져온 ‘일대일제자양육’

이정숙 권사
(춘천새순교회)

몇 해 전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시청하다가 온누리교회 유헤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TV에서 보던 배우가 교회 권사라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 유헤리 권사님이 처음 예수님

을 영접했던 이야기, 성령체험을 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며 더욱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일대일제자양육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내가 섬기는 춘천새순교회와 온누리교회가 형제 교회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온누리교회와의 연합으로 춘천새순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일대일제자양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참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도 아니어서 아쉬웠다. ‘이렇게 허무한 세월만 보내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면서 자신감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와 형제 교회가 되면서 모든 것을 새 소망으로 시작한다는 기대를 하고 일대일제자양육에 임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정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는 16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시작으로 ‘큐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해를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등을 배우면서 내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매주 암송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큰 은혜였다. 양육자님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쁨이 가득했다. 특히 권사님들과 더 깊은 교제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 주 한 주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었다.

목사님의 재치와 은혜 넘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정말 좋았다. 끝나는 시간이 언제 다가온지도 모를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다. 한순간도 버릴 시간이 없었다.

춘천새순교회 일대일제자양육에는 모두 12명이 참가했다. 4명씩 3개 조로 나뉘어 훈련을 받았다. 서로의 발표와 간증을 들으며 도전을 받았다. 부족한 내가 너무나도 훌륭한 권사님들을 만나서 더욱 성장하는 기회였다.

내 인생, 일대일제자양육이 이루어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안다.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 깊이 간직한다. 이번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계기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한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귀한 일대일제자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앙에세이

박모세 목사
(서산봉성년공동체)

지난겨울, 아웃리치를 준비하던 중에 한 지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목사님, 저 아웃리치에 갈 수 없어요. 이유는 묻지 말아 주세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CM 송 가사가 스쳐 지나

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온 힘을 다해 필자가 먼저, 그다음에는 팀 구성원들이, 마지막에는 멘토님들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렇게 중도 하차한 지체를 뒤로하고, 어찌면 지체가 걱정했을 법한 고민을 안은 채 아웃리치 첫걸음을 땀다. 그러나 염려도 잠시,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셨어요”라는 고백이 연신 터져 나오는 현장에는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은혜의 현장을 떠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편에 잠시 묻어 두었던 염려가 피어올랐다. 아웃리치에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지체였다.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증거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다.

여름사역 회의에서 “모든 청년 구성원이 함께 아웃리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때 그 지체가 떠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체는 현실적인 이유로 아웃리치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지체를 향해 필자는 설득이 아닌 믿음을 고백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으니 우리는 잘 준비해서 현장으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맞볼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부단히 기도하며 한 치의 의심도 두지 않으려 노력했다.

여름 아웃리치 아침이 밝았다. 당일 우천 소식으로 준비했던 페인트 작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안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러

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 우려했던 비는 오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날, 구름기둥과 같은 시원한 그늘을 주셔서 편안하게 작업하게 하시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불기둥처럼 뜨거운 햇빛을 주셔서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후로도 3일을 꼬박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마지막 날 저녁, 마침내 “하나님이 정말 다 예비해 두셨네요”라는 고백을 이 지체가 듣게 되었다. 필자의 염려가 해소되는 그 순간 ‘그럴 줄 알았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이 내 마음 한편에 그 지체를 염려로 주신 이유, 공동체를 통해 그에게 아웃리치를 도전하게 하신 이유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다.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무엇이 이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했을까?’를 되물었다. 그 답을 ‘삭개오’라는 인물에게서 발견했다. ‘삭개오’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다. 예수님이 예리고를 지나실 때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 위해 뿔나무에 올랐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다. 삭개오는 로마의 세리이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셨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른 것은 분명 숨겨진 요소가 있으리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는 그의 고백은 앞으로의 포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시제로 기록된 이 고백은 그가 이미 그렇게 해오던 일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자신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바람이 그 지체에게도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기에 역시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아닐까? 한 해를 결산하며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

“그럴 줄 알았어.”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장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HA DAIA -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박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승수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정희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웅 김태완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럼분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준호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상
배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성 신경훈 신성진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부일 양성민 양진범 여성미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정아
유현록 율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진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전병천 전진익 전 진
전재표 정동원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조선미 주하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희중 추대식
이형복 임동현 정지훈 최강호

한화수 한홍희 해틀드김 하원희
황문규 황신연

◆전도사(전임)

김한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형복 임동현 정지훈 최강호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해미 조조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전 목사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식 비 켈 서경남 서영철
심은실 강애남 양현수 율영혜

에릭마이클스블즈
이상은 이은현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최선재

정진모 제인랑 최희연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원연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찬 권애람 권평화

권혁성 김기희 김경배 김기대
김동우 김병초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현철 김하은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하목 나가노

마사토 남 해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박 권

박미애 박상현 박 성 박성훈
박시온 박요한 박유진 박의력

박종일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운주 배현희 서아연 서은규

서해진 손위결 송영호 송찬욱
신나래 신호철 안류택 안유택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유수진 유승희

유석현 유요한 유지은 유찬
윤길문 윤조현 윤종연 윤지현

이건준 이나란 이미진 이민규
이반석 이선미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이형준 임경미 임노완

장근주 장성엽 장영주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기은 정성원

정연영 정영현 정은영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기연 조민희

조슬기 지석구 최규종 최은하
최은혜 최은하 최은하 최은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인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영철 권관근

김남식 김남원 김두진 김병중
김남식 김명훈 김명훈 김상성

김성인 김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수 김상인 김수영 김수웅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승배
김 원 김의득 김이균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중진 김성진
김중성 김지홍 김준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희중
김현철 김희경 김형식 김형중

나상근 노재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식 문현구

박공 박병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우현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박형민
박홍규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서창섭 순환기 송영범

송태원 송유진 송일섭 송재길
신만인 신명각 신우진 신학철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준보 안국영 안동현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우식 양재수
양준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진 유병진 유병훈
유석현 유재현 유 형 유지홍

윤성열 유기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태 윤영주

이강범 이기연 이경찬 이관수
이광현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백용 이창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재준 이장호 이재근 이종길

이준성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관순 장규환 장선철
장규환 장선철 장선철 장선철

정대서 정돈영 정순봉 정영일
정보원 정상기 정순봉 정영일

정용화 정운오 정태택 정태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정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차승철 차준구 차준환 차준우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석 최창규 최정수 최충길
최진영 권무호 한갑수 한규중

한태영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함종일

함일석 함광수 함덕표 함보식
홍기표 홍태표 홍영욱 홍영오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장 광 박 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장 광 박현 박현규 박흥선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

RE 다시, 성경! 바이블

바쁜 일상 속, 말씀의 중요성이 흐려진 시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인물·사건을 중심으로 배우는 성경 공부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본질을 만나다

시
청
안
내

CGN TV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CGN 유튜브 수요일 오전 9시

풍경 화요일 오전 0시



CGN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후원 신청